

基地의 ‘평화’와 전장의 글쓰기^{*}

— 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1951~1954)를 중심으로^{**}

張世眞^{***}

- | | |
|---------------------------------------|----------------------------------|
| I. ‘전시/평화’의 동아시아적 분할,
그리고 장혁주의 글쓰기 | III. ‘중립’의 컨텍스트 |
| II. 하늘 길과 바다 길: 전장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 IV. 결론: 어떤 중립, 어떤 평화를 지향할
것인가 |

●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어로 쓰여진 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들, 특히 『아, 조선』(1952)과 『무궁화』(1954)를 당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교차하며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전쟁이 벌어진 바로 그 실시간대에 장혁주가 한국과 일본을 두 차례 오가며 쓴, 당시로선 매우 예외적인 한일 간 越境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텍스트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장혁주의 한국전쟁 텍스트들이 견지하는 거의 일관된 특징으로, ‘중립’의 감각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어)의 맥락에서 볼 때, 중립이란 남한이나 북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보기 드문 ‘객관적인’ 입장에 해당된다. 『아, 조선』에서 중립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5B8057496).

** 일본 쪽 장혁주 연구의 최근 동향,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문제와 한국전쟁의 관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토론자 조은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부교수

입장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한 실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무궁화』의 경우 남과 북의 대립을 지양했던 해방기 이래 ‘중간파’ 정치인 집안의 몰락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재현은 한국 정부의 검열에서 자유로운, 일본어 글쓰기와 일본 매체 출판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능한 성취였다.

그러나 일본(어)의 맥락에서 보자면 장혁주 텍스트의 ‘중립’이란 실은 전혀 다른 지평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는 장혁주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중립의 태도가 조선의 전쟁에 결코 휘말리지 않겠다는 당시 일본 사회의 주류적인 평화 담론의 맥락 속에서 독해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물론, 일본 사회의 평화론은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자기 표상이란, 사실상 ‘기지국가’로서 대규모 인원을 한국전쟁에 참전시킨 현실을 누락시킬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장혁주의 텍스트는 한국의 전장을 직접 목격한 후에 쓰여졌지만, 당시 일본의 전쟁 연루 양상은 말끔히 삭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장혁주의 한국전쟁 텍스트들은 ‘강 건너 불’이라는 대중적인 인식 차원의 朝鮮戰爭, 즉 ‘朝鮮=戰場’, ‘日本=平和’라는, 일본 사회의 주류적인 담론 분할을 깊숙이 내면화하거나 혹은 이러한 인식을 보다 심화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주제어 : 장혁주, 한국전쟁, 일본, 평화, 기지국가, 참전, 『아, 조선』, 『무궁화』, 전시 중립, 중립화, 중립주의, 홋타 요시에, 재일조선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I. ‘전시/평화’의 동아시아적 분할, 그리고 장혁주의 글쓰기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일본의 전후헌법 9조가 이제껏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영구 전쟁 放棄를 약속하는 동시에 육·해·공군 및 기타 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의 내용은 전후 일본 헌법을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만들 정도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그러나 가라타니에 의하면, 신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 9조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간주된 헌법 1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실은 편의적으로 덧붙여진 일종의 덤 혹은 패키지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헌법 9조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핵심 전범인 천황을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황제를 國體로서 계속 인정한다는 헌법 1조의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점령 당국(GHQ)과 일본 정부의 협업으로 탄생한 1조의 발상이 당시 국제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고안된, 국제사회를 향한 ‘증여’의 제스처여가 바로 9조였던 셈이다.¹⁾

헌법 9조의 탄생이 이처럼 ‘우연적인’ 것이었다면, 상황의 변화(하지 않더라도)와 함께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려는 이러저러한 시도가 언제든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헌법이 제정된 지 채 4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GHQ 측에서 일본 정부에 재군비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맥아더의 압박에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이 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적극 활용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 영토를 미국의 군사 기지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한편, 군사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경찰예비대(National Police Reserve, 현 자위대의 전신, 1950.8)’라는 묘한 이름의 조직을 창설

1) 가라타니에 따르면, 전쟁 放棄라는 아이디어는 맥아더보다도 오히려 일본의 시데하라(幣原) 수상 쪽의 ‘이상’이었다. 시데하라(幣原)는 1차 대전 이후 외상을 지냈던 인물로, 전쟁을 위법화하는 파리부전조약(1928)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시데하라(幣原)가 일본과 독일이 이 조약을 짓밟은 결과로 인해 패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 대목에서 전쟁 放棄를 전후 일본의 진로로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헌법의 무의식』, 도서출판 b, 2017, 35~38면.

한 조치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재군비의 길을 살그머니 걸었던 한국전쟁 당시의 이 전략은 ‘평화헌법’ 아래서도 꾸준히 자국의 전력을 증강시켜 온 일본 특유의 대내외적 군사 노선의 기원이 될 터였다. 일본을 ‘기지국가’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남기정의 분석에 따르자면,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자기규정은 이제 한국전쟁을 통과하며 “현실을 제어하는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기지국가라는 “현실을 덮어씌워 감추는 이념” 즉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최초로 작동하기 시작한다.²⁾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본은 한국전쟁의 후방 군사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8,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한국의 전장으로 투입시킨 또 하나의 숨겨진 ‘참전국’이었다.³⁾ 유엔의 공식 참전 16개국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8,000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한 국가가 미국을 필두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터키의 5개국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일본은 상당 규모의 참전국이 틀림없었다.⁴⁾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표된 아사히(朝日) 신문의 논조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향후 일본 사회의 주류 언설 공간에서 ‘朝鮮/日本’은 ‘戰時/平和’라는 담론적 분할 속에서 거의 일관되게 표상될 터였다. 예컨대, 조선의 “불타오르는 전화”와 “우리들이 결의한 전후 평화의 방향” 및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행복”은 날카로운 대조와 단절을 이루었다. 자연히, 이 대비는 현해탄 너머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쪽으로 귀결되게 마련이었다.

물론 당시의 평화론이 재군비를 요청한 GHQ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집결에 맞서는 정치적 대결 의식, 나아가 헌법 9조를 지켜내려는 윤리적 결단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 사회가 바로 이 담론적 분할에 기초하여 한국전쟁, 나아가 이후 냉전의 시간들을 내내 기억해왔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마루카와 데츠시(丸川哲史)가 정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식의 기억 속에서라면 “한국

2)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8면.

3) 8,000명이라는 숫자는 전투 행위와 관련된 ‘참전’에 해당하는 작업에 참가한 인원이다. 일본의 『점령 군조달사占領軍調達史』(1956)는 기술자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된 노무자 수를 합해 8~9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남기정, 앞의 2016 책, 재인용, 206면.

4) Tessa Morris-Suzuki, Japan and the Korean War: A Cross-Border Perspective, 〈特輯: 朝鮮戦争と日本〉, アジア研究, Vol 61, June 2015.

전쟁이라는 불”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피어올랐던” 강력한 불길이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망각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⁵⁾ 이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본이 추구한 평화 노선이란 남·북한은 물론이고, 대륙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광역 단위로 戰火에 휩쓸린 동아시아를 팔호 속에 넣고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일본’, ‘전시와 평화’, (냉전의) ‘내부와 외부’라는 담론적 분할이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면, 당시 두 개 항의 경계선에 자리하면서 그 사이를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오고갈 수 있었던 한 작가의 존재란 실은 그 자체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궤적 또한 상당히 흥미로웠던 그 인물이란 다름 아닌 장혁주 혹은 노구치 가쿠츄(野口赫宙: 張赫宙의 일본 필명)이다. 일찍이 ‘內地’ 문단에서 거두었던 화려한 성공 이후, 1936년 경 아예 度日하여 일본에서의 삶과 일본어 글쓰기를 선택했던 장혁주(1905~1998)는 일본의 패전 이후 다른 작가들보다 한층 더 표 나게 ‘친일’ 전력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해방을 맞이한 조선으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가 일본에서 새로운 작가적 진로를 모색하며 고전했다는 것, 그러던 와중에 재기의 발판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장혁주의 과거 글쓰기나 조선에서의 문단 유명세에 비하자면 확실히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⁶⁾

실제로, 1951년 7월 마이니찌(毎日) 신문사의 후원으로 한 달간 취재 차 방한한 그는 다수의 르포르타주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중·단편, 장편 소설 등을 왕성하게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취재의 동기에 대해 장혁주는 주로 외신 보도를 활용한 다른 일본 필자들의 글쓰기가 솔직히 “성에 차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5) 마루카와 데츠시(丸川哲史),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39면.

6)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는, 한국인에 의한 일본어 창작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할 만한 이로 3인을 손꼽는다. 「사랑하는 대륙아 愛する大陸よ」(1931)의 시인 김용제,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소설 「아귀도(餓鬼道)」(1932)로 등단하여 그 이후로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계속한 장혁주, 좀 더 이후인 일제 말기에 유명한 「빛 속으로 光の中に」(1939)로 등단한 김사량이 그들이다. 물론, 제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고평 받는 이는 단연 김사량이지만, 시라카와는 “적어도 15년간에 걸쳐 왕성히 활동한, 일본어 작가의 제일인자격”인 장혁주를 문학사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17~18면.

일본의 “필자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애정의 방식”이 무엇보다 문제였다고 쓰고 있다. 전장이 되어버린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현지 조선인에 보다 가까운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 거기에 덧붙여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일종의 소명 의식 아래 그의 전쟁 취재와 글쓰기가 이루어진 셈이었다.⁷⁾ 당시 매체들의 홍보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장혁주에게 원고를 의뢰했던 일본 출판사의 기획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⁸⁾

일본어로 쓰여진 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들(장편소설 두 권을 포함한)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로 작성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장혁주의 텍스트 내부에서 특정 작품군들끼리 서로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⁹⁾ 예컨대, 식민지 시기 제국의 국책 사업에 협력했던 글쓰기와 한국전쟁 시기 글쓰기의 특징을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한 다든지 혹은 전장 취재를 토대로 쓰여진 장편소설들에 관한 개별 작품론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는 한편으로, 이 글에서는 장혁주의 글쓰기가 전쟁이 벌어진 바로 그 실시간대에 한국의 전장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쓰여진 ‘越境하는 텍스트’였다는 점에 특히 착안하였다.

이 발상이 의미하는 것은 訪韓이라는 장혁주의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가능했던 글쓰기 양자 모두를 당대 한국(어)의 컨텍스트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처해 있던 조건 속에 배치하려 한다는 뜻이다.¹⁰⁾ 다시 말해, ‘한국/조선전쟁’을 둘러싼 양국의

7) 張赫宙, 「祖國朝鮮に飛ぶ第一報」, 『毎日情報』, 1951.9.

8) 마이니치 신문사 계열의 잡지 『毎日情報』는 本誌特約이라는 구성으로, 장혁주의 전장 취재를 두 차례(1951년 9월과 11월)에 걸쳐 연재했다. 이 잡지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20여년에 걸쳐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해온 장혁주씨는 동란 발발 이래, 밤낮으로 슬퍼해 마땅한 동포 민족의 운명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7월 말 드디어 마음을 굳혀 조국으로 날아가 이내 다음과 같은 열정이 넘치는 제1보를 본지에 보내왔다.” 張赫宙, 앞의 1951 글.

9) 일본문학 연구자인 김학동의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대표적이다. 「6·25 전쟁에 대한 張赫宙의 현지리포와 민족의식」, 『인문학연구』 76,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장혁주의 『아, 조선(嗚呼朝鮮)』 『무궁화』문: 6·25 전쟁의 형상화에 엮이는 작가의 민족의식」, 『日本學研究』 24,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8; 신승모, 「전후의 장혁주 문학」, 『日本文化研究』 13,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10) 일본어로 된 연구 중에는 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글쓰기를 일본(어) 컨텍스트에서 자세하게 밝힌 선행 연구들이 있다. 張允摩, 「朝鮮戰爭をめぐる日本とアメリカ占領軍-張赫宙『嗚呼朝鮮』論」, 『社會文學』 32, 社會文學編集委員會, 2010; 고영란, 「조선/한국전쟁」 혹은 ‘분열/분단’: 기억의

군사, 정치, 사회적 상황의 흐름 한 가운데로 텍스트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한일 양쪽의 맥락을 서로 교차하여 읽으려 한다는 뜻이다. 이승만 정권 하의 전시 동원이라는 한국(어)의 맥락은 물론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이지만, 함께 참조되는 일본(어)의 맥락으로는 우선 일본 정부의 경무장 지침, 나아가 (비공식적) 국가 전쟁 동원이라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 호헌의 기치 아래 전개된 일본 지식인들의 일련의 ‘평화’ 담론, 그리고 동일한 평화를 외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수단과 결을 선보인 재일조선인 사회의 反戰 행동 및 재일의용군의 참전 행위까지, 요컨대 ‘조선전쟁’을 둘러싼 상호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컨텍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장혁주의 전장 글쓰기라는 텍스트의 탄생 자체, 그리고 그의 글쓰기가 유통된 의미망이 그러한 다층적인 조건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만큼, 이 글은 교차하는 여러 문맥들 속에서 장혁주의 한국행과 글쓰기를 읽을 것을 제안한다.

II. 하늘 길과 바다 길: 전장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장혁주는 1951년 7월과 195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비행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전쟁을 취재했다. 현장성이 강조되는 전장의 메모들은 취재 이후 이내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일본 잡지에 게재되었고,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이 기록들은 단편이나 장편의 소설 형식으로 개고되어 발표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취재가 일본의 보통 작가들에게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는 결코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1952.4) 이후 일본이 독립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의 전장에 일본인 특파원을 보낼 수 있었던 사정을 떠올려보면,¹¹⁾ 일본 거주 조선인 작가였던 장혁주의 첫 번째 방한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파격 대우였던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 등록

승인을 둘러싸고」, 『大東文化研究』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이 논문은 한국전쟁 당사를 배경으로 일본공산당 내 재일조선인들의 갈등을 그린 김달수의 『일본의 겨울 日本の冬』에 관한 작품론이지만, 이 텍스트와 대척점에 있는 작품으로 장혁주의 『아, 조선 嗚呼朝鮮』을 배치하여 적지 않은 비중으로 거론하고 있다. 장혁주의 전후 시기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으로는 梁嬉淑, 「張赫宙戰後研究: 終戰から歸化まで」, 埼玉大學大學院文化科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14.

11) 남기정, 앞의 2016 책, 403면.

령’ 발표(1947.5) 이후, 구 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내에서 일괄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던 탓에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금지되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이 예외성은 한층 명백한 것이었다.¹²⁾

결국, 이 같은 지원과 혜택은 점령당국 GHQ가 연합국과 한국군 측의 전투 지역에서 한국전쟁을 취재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는 뜻이고, 이때 상대적으로 당국의 검열 처분을 적게 받아왔던 미디어인 마이니치 신문사가 자사의 특파원으로 선택, 파견한 이가 바로 장혁주였다는 의미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장혁주가 전장 취재 후 발표한 소설 『아, 조선 嗚呼朝鮮』(1952)은 바로 1년 전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아아, 조선(ああ朝鮮)』이라는 책과 일본어 발음 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제목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련 미디어의 특파원이 북한 인민군의 전투 지역을 종군해 쓰인 책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두 텍스트는 정치적 구도 상으로 정확히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¹³⁾

장혁주의 첫 번째 한국 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국 조선으로 날아가다(제1보) 祖國朝鮮に飛ぶ第一報」에는 하네다 공항에서 그가 옛 지인 양우정을 우연히 만나 비행기에 동석하게 된 에피소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이승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최측근 이데올로그 인사답게 양우정은 대통령을 둘러싼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오해라는 것, 대통령이 노동자·농민을 대변하는 진보적 정치인이라는 사실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역설한다. 양우정과 장혁주의 기내 대화는 일본 發 조선행 비행기가 어떤 인사들의 이동 수단이었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하지만, 실은 비행기와 관련하여 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상공에서 내려다본 지상의 풍경을 기술하는 장혁주의 어조이다.

양씨는 상체를 세워 창밖을 들여다보면서 “일본은 아름다워. 정말로, 금수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야.”하고 감탄했다. 나는 그 말의 이면에서, 거칠고

12) Tessa Morris Suzuki, 앞의 2015 글.

13) 「콤포스콜스카야 프라우다」지의 특파원 알렉세이 코진이 쓴 책이다. 고영란은 장혁주의 『아, 조선嗚呼朝鮮』이 『아아, 조선 ああ朝鮮』(1951)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김사량의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와도 상반된 구도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 종군기는 김사량이 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당시 일본공산당 소속이었던 문인 김달수의 번역으로 『中央公論』(1953)에 실렸다. 고영란, 앞의 2012 글.

황폐해진 고국의 산하를 연상했다. 양씨는 몇 번인가 창밖을 엿보았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이별하는 것이 싫은 모양이었다.¹⁴⁾

일본 국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울창한 숲의 녹색이 자주 동원되는 것에 비해, 원래 민둥산이 많은 데다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조선 땅은 그가 이미 대면하기도 전에 흉한 적색의 모습으로 떠올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장이 된 땅에서 풍경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초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녹색의 일본’과 ‘황폐한 붉은 조선’을 나란히 병치시키는 장혁주의 시선은 제 2보 르포르타주인 「고국의 산하 故國の山河」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한 달 가량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푸르름이 싱싱하게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녹색의 나라로 돌아온 행복을 나는 마음 속 깊이 느꼈다.”라고 쓴다. 그러나 이 첨예한 대조의 화법이 그로서도 마음 편한 상황일 리는 없어서, “일본에 돌아온 행복감은 조국에 남아 있는 나의 육친을 생각하고서 사라졌다. 황폐한 마을, 파괴된 시내가 강렬하고 분명하게 스며들어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천만의 고통에 압도되었다.”고 그는 덧붙인다.¹⁵⁾

문제는 고국을 향한 진정성 어린 연민에도 불구하고 한·일 대비의 프레임을 한층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다. 확실히, 녹색과 적색의 병치는 두 나라의 풍경 묘사에 그치지 않고 ‘평화로운 일본’과 ‘전사 하 조선’이라는 일견 상반된 정치 상황을 일본의 독자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터였다. 일반적으로,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비행의 조망 시점이란 그 자체로 사태를 단순화하고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일종의 소격효과와 미적 아우라를 를 산출하게 마련이다.¹⁶⁾ 그러나 장혁주가 비행기 창 밖 아래로 내려다 본 풍경, 특히 그가 “푸른 바다의 언덕 靑海原(넓디 넓은 바다를 일컫는 말)”¹⁷⁾이라 감탄을 거듭하며 묘사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14) 張赫宙, 「祖國朝鮮に飛ぶ第一報」, 『毎日情報』, 1951.9.

15) 張赫宙, 「故國の山下」, 『毎日情報』, 1951.11.

16) 물론 하늘 길이 바다 길 못지않게 한국전쟁의 통로였던 것도 사실이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기들이 한반도에 폭격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경우 3년 내내 미군의 B-29기에 의해 도시와 농촌이 폭격 당했는데, 그 출격지가 대부분 오키나와였다.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67면. 한국전쟁 당시 오키나와의 미 공군 기지 가데나, 후텐마 비행장, 우루마시의 화이트 비치 지구(주일 미 해군 항만시설)는 미군뿐 아니라 유엔군 기지이기도 했다. 「오키나와인들의 선택은 공존과 평화」, 『시사HN』, 2018.10.17.

전시 중에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이기만 했을까.

우선, 통로로서의 바닷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전투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포함한 군수 물자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보급과 수송의 문제이다. 실제로, 한일 사이의 바다는 한국전쟁이 터지자 곧 한반도로 대거 출격한 일본 주둔 미 육군들의 필수적인 보급 수송 루트로 급변했다.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해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의 참전 실태가 하나 둘 씩 밝혀지는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공통적인 사실은 일본이라는 기지국가의 존재,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해운과 선원들이 없었다면 유엔군이 한국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승기를 잡기란 몹시도 난망한 일이었다는 점이다.

그 자신 중앙기선의 선장이었으면서 과거 일본 해운과 한국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탐구해 온 가바자와 요이치(梶澤陽一)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자 한일 사이의 바다에서 자유로운 민간 교역선의 운행은 재빨리 중단되었다. 대신, 이 시기 한일 사이의 바닷길을 차지한 것은 각종 군용선들이었다. 예컨대, 무장 탱크를 양륙시킬 수 있는 상륙 작전용의 대규모 LST 함정, 군사해상수송사령부 (MSTS,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가 전투 병력과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징발한 일본의 민간 대형 상선들, 연합군의 물자 양륙 작업 시 거룻배 역할을 하는 기범선과 같은 배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바다 길을 가득 메웠다. 뿐만이 아니었다. 2차 대전 후 아직 귀국하지 못한 일본인들을 인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귀환 수송선들 역시 전쟁 초기에는 운항 도중 미군 기지들이 있는 도시-사세보, 요코하마, 모지(門司) 등-로 즉시 회항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¹⁸⁾ 이 귀환선들은 육군 사단 소속의 미군 장병들을 부산으로 속속 수송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징발된 한국인 젊은이들을 단기간 내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의 기지 도시로 실어나르고 또한 그들을 다시 한국의 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했다.¹⁹⁾

17) 張赫宙, 위의 1951 글.

18) 石丸安藏, 「朝鮮戰爭と日本の港湾-國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 NIDS security studies 9-3, 防衛省防衛研究所, 2007.

19) 梶澤陽一, 「朝鮮戰爭と日本人船員-其の二」, 『海員』, 2007.9. 전쟁 발발 초기에는 일본의 해운은 일본 각지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 쪽으로 물자, 군대 수송 등에 종사했고 그 후 전쟁이 진전되면서부터는 한국 해역 전역에 취항했다.

그러나 보다 문제적인 대목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전장과 기지를 연결하는 군사 보급 통로의 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이 바다는 그 자체로 전장의 공간이기도 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일본의 전쟁 협력은 한국의 해역 곳곳에 掃海 부대를 파견한 일이었다. 掃海艦이란 문자 그대로 ‘바다를 청소하는 전함’의 뜻으로, 바다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부대를 뜻한다. 원산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해역에 일본 소해 부대를 파견해달라는 극동해군사령부의 요청이 당시 일본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²⁰⁾ 우선, 소해작업의 성격 상 적군이 부설한 기뢰 폭발 시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실 상의 전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상보안청은 비군사적 부대라는 것이 명기²¹⁾되어 있어 헌법 9조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요청은 원산상륙작전(1950.10.2)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 작전은 미국의 전쟁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38선 이북으로 연합군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소해 부대 파견이란 “유엔이 자신의 전쟁 개입을 정당화했던 경찰 행동 이상의 행위에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²²⁾ 실제로, 이 명령을 받은 일본 소해정장과 대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이내 무마되어 파견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²³⁾ 소해정 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 수송에 징발된 기범선의 선원들 사이에서도 역시 “조선전쟁의 수송을 위해 현지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하는 문제와 일본 헌법과의 관계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게 된다. 아무래도 거역할 수 없는 점령 당국의 명령이라는 이유에서 혹은 배에서 내리는 下船이 곧 퇴직이나 실직으로 연결되리라 짐작했던 전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선장들은 결국 조선행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게

20) MBC는 2001년 6월 22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6·25, 일본 참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생존해 있던 일본인 소해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했으며,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 양상과 이 사실이 은폐된 맥락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21) 鈴木英隆, 「朝鮮海域に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 *Military history studies annual* 8, 防衛研究所 2005.

22) 남기정, 앞의 2016 책, 189면.

23) 패전 직후 마련된 법적 조항에는 일본 뿐 아니라 조선 수역의 기뢰는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소해작업을 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규정은 물론 전시 상태를 상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 소해부대의 작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鈴木英隆, 앞의 2005 글.

된다.²⁴⁾

이렇게 해서, 일본 특별소해부대는 원산, 인천, 해주, 진남포, 군산 등의 한반도 해역에 파견되었고, 이 소해 작전에서 전후 일본의 최초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²⁵⁾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일본의 참전이 “floating War” 즉, 물에 떠 부유한 채 이루어진 형태였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바다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 시적인 지역으로 활용한 셈이었는데, 일본의 선원들을 비롯하여 전쟁과 관련된 여타의 군사적 동원이 한국 땅(soli)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 일본인들은 엄밀히 말해 “한국에 보내지지 않았다”고 미국은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⁶⁾

물론, 미국 측의 공여지책에 가까운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반응은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쟁 당사자인 북한군 쪽에서 일본의 소해정 파견에 관해 격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50년 10월, 북조선인민공화국 外相이었던 박헌영은 “국제연합군에 일본 병사가 참전해 있다”고 비판했고, 소비에트 연방 역시 이 사안이 포츠담 선언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북한의 비판을 지지하며 가세했다. 미국의 지휘 아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공식 참전국들 역시 이 평화헌법을 선언한 일본의 참전 이슈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었다.²⁷⁾ 한편, 미국과 함께 싸우던 한국 측의 반응은 조금 의외여서 흥미로운데, 1951년 4월 이승만은 연합군과 북한 인민군의 격전지 중 하나였던 倭館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최근 연합군 중에 일본 병사가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진위 여부가 어떻든,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출병한다면, 우리는 공산군과 싸우고 있는 충구를 돌려 일본군과 싸우게 될 것이다.”²⁸⁾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식의 단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처지는 물론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림 자체가 식민지로부터 갓 벗어난 한국인들 일반에 야기할 수 있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24) 野平陽一, 『憲法九条と私の體驗』, 『海員』, 2006.9. 한편 소수의 기범선 선장들은 ‘신념’을 지켜 하선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귀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25) 동원된 소해정과 순시선은 도합 54척이었고, 투입된 인원은 연 1,204명에 달했다고 한다. 남기정, 앞의 2016 책, 187면.

26) Tessa Morris Suzuki, 앞의 2015 글.

27) Tessa Morris Suzuki, 앞의 2015 글.

28)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朝鮮戰爭秘史』. 岩波書店, 2007, 156~157면.

이승만의 공식 대처법이었던 셈이다.

다시 장혁주가 비행기에서 부감했던 1951년 7월의 바다로 돌아가 보자. 이 시기는 최초의 휴전회담(1951.7.10)이 개성에서 개최되던 무렵으로, 민간 상선의 동원이나 징발은 전쟁 초기에 비해 확실히 크게 줄어든 시점이기는 했다. 그러나 “휴전회담 중이라고는 해도,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포성 가운데 해안과 병원선 사이를 병력과 물자 수송에 종사하면서 至近彈을 맞았다.”는 일본 선원의 진술처럼 “정세의 변화가 있다고는 해도, 요컨대 전쟁은 전쟁인 것이었다.”²⁹⁾ 더욱이, 이 시점은 여전히 일본의 소해 부대가 인천,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진해 등지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던 시기였다. 공식 기록으로는, 일본특별소해부대가 활동한 시기가 1950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약 두 달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공개된 선원들의 증언들이 전하는 사실은 이와는 달랐다. 증언들에 의하면, 일본이 점령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952년 8월 시점에서도 선원들은 소해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試航을 계속하는 중이었다.³⁰⁾

Ⅲ. ‘중립’의 컨텍스트

1. 『아, 조선』의 ‘중립’이 의미하는 것

한국의 전장 취재 경험을 토대로 1952년에 발표된 장혁주의 장편소설 『아, 조선』의 기본 발상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남과 북의 체제 양쪽 모두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체 3부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1부는 주인공 “성일”이 북한의 인민 의용군 모집으로 (강제) 징발되어 전장의 군인도 아닌 남한의 무고한 인민들을 직접 학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군의 포로가 된 주인공이 이번에는 거꾸로 남한의 국민방위군에 차출되어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제노사이드

29) 椛澤陽一, 「朝鮮戦争と日本人船員-其の三」, 『海員』, 2007.10 이 발언은 일본인 선원 柔島씨의 증언이다.

30) 남기정, 앞의 2016 책.

를 목격한다는 설정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이전의 르포르타주들이 ‘화자-외부자’의 시점에서 전쟁의 참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반면, 『아, 조선』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적 허구(fiction)의 힘에 의탁하고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종합하여, 남북의 체제 양측 모두를 ‘내부’의 시점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의 위치를 새롭게 고안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이전 르포르타주들과는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까닭이다.

연합군 측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장혁주의 訪韓 경위는 잠시 괄호 속에 넣어둔 채, 일단 내부 논리로만 『아, 조선』이라는 텍스트를 살펴보자. 일본의 장혁주 연구자인 시라카와 유타카 역시 지적한 바이지만, 이 텍스트 속 주인공의 위치와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 ‘중립’이다.³¹⁾ 실제로, 이 소설은 남과 북 양측 체제의 모순이 1, 2부를 통해 서로 팽팽한 대결을 이루듯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와 같은 소설 구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아, 조선』은 1960년 4.19의 벽두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을 분명 연상시키는 데가 있다. 더욱이 3부의 마지막 결말부, 주인공은 (거제도로 추정되는) 인민군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성일”은 북한을 지지하는 포로들과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들 양자 모두에게 시종일관 거리를 둔다. “성일”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데, “이제는 그의 신념이 된 엄청난 중립이 하나의主義가 되어 그의 포로 생활을 유지했다.”³²⁾

물론, 주인공 “성일”이 남과 북 모두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서만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중립이 냉전의 진영 논리 속에서 결국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가 장래 영문학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영문과의 학생이었다는 것, 독실한 크리스티교 신자 집안에서 교리를 믿으며 유복하게 성장했다는 사실 또한 그의 정치적 지향을 가늠해주는 근거들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가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자신의 집을 고아원으로 개조해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미군과 PX의 존재가 그의 으뜸가는 경제적 후원자였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주는 사실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³³⁾ 물론, 미국에 대한 이 일관된 선의와 호의는

31) 白川豊, 「朝鮮近代知日派作家, 苦悶の奇跡」, 勉誠出版, 2008, 296~298면.

32) 장혁주, 장세진 옮김, 『아, 조선: 장혁주 소설선집 1』, 소명출판, 2018, 335면.

33) 그런데 張允麐의 경우, 『아, 조선』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입장에 관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당국의 검열 시스템을 의식한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을 터였다.

그러나 주인공의 삶 깊숙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정치적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의 2부에서 자세하게 제시된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양과 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알려진 대로, 한국전쟁 최대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1950.12~1951.2)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2)은 각각 전쟁 중에 벌어진 군대 내 군수 물자 횡령 비리와 자국민 살해의 대형 참사에 해당된다. 『아, 조선』의 2부는 한국군이 된 “성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은폐된 비극들의 한 가운데서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 그리고 목격자의 신분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 비극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적이지만, 한국 군대와 관료들의 비윤리성, 그리고 그보다 더한 무능함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실책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을 칭송하는 과거의 문인 동료들과 조우하는 에피소드들을 집어넣고, 그들의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은 채 전달하는 태도를 취했던 르포르타주에 비하자면, 『아, 조선』에서 구현된 정치적 입장은 훨씬 더 날카롭게 버려지고 선명해진 셈이었다.

무엇보다, 『아, 조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남한의 국민방위군 소대장이 광기에 사로잡혀 자국의 양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성일”의 몇몇 동료들이 인민군에게 투항할 것을 마침내 결심하는 장면이다. 북한 체제에 희망을 거는 그들에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으면서도, “성일”은 지리산을 향해 들어가는 그들이 제발 무사히 인민군과 조우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한다. 더욱이, 멀어지는 그들을 향해 그는 “몇 번인가, 이봐 기다려!” 툭 밀까지 가득 차오른 외침의 충동과 그들과 합류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내기까지 한다. 이별의 순간 “성일”에게 찾아온 이 진지한 내적 동요로 인해, 인민군 측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한국군의 이탈 행동,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다. 그 근거로 의용군이 된 성일이 유엔군이나 한국군에 대해서는 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성일이 인민군을 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張允摩, 앞의 2010 글). 張允摩의 연구는 장혁주의 소설에 내재한 미국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다. 물론 『아, 조선』에 미국에 대한 크고 작은 부정적인 묘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묘사가 같은 시기 미국 점령 하에 놓여 있던 일본 독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3부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이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미국에 호의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남과 북에 대해서는 동일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호의와 선의의 뉘앙스가 계속된다.

나아가 그 시절을 감당했던 어떤 이들이 결국 선택한 월북이라는 행위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공감할 만한 수준의 결정으로 재현되는 효과가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 효과가 가지는 적지 않은 의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작가들이 오랫동안 한국전쟁을 재현해 온 특정한 관습이나 패턴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종군기 류의 소설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쟁의 참상을 강박적으로 재현하거나 그 논리적 귀결로서 ‘보편적인’(통속적인)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텍스트들이 1950년대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휴머니즘을 거부한 당대 문제작들의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 역시 대립된 두 이데올로기 양자 모두에 대한 환멸이 너무나 극심했던 나머지, 비판의 초점이 인류의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한 추상적이고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진적인 부정과 회의로 제어 없이 경사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비하자면, 『아, 조선』의 전쟁 비판은 남한의 통치 권력을 에두름 없이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난민화 하는 대립된 정치 세력의 구조를 나란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자면, 실은 보기 드물게 ‘객관적’이기도 했다. 물론, 이 모든 성취가 한국 정부의 엄격한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어 글쓰기와 일본의 출판사라는 미디어 환경을 통해 가능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인공 “성일”의 ‘중립’을 텍스트 내부의 논리와 한국(어)의 컨텍스트를 넘어서서, 다시 말해 당시 한국전쟁을 둘러싼 일본(어)의 컨텍스트 내로 옮겨서 배치하여 그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어떨까. 일본어로 쓰인 만큼 일본(어) 컨텍스트를 참조하는 것은 실은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중립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원래 국제정치 상의 용어인 중립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타국들 간의 갈등 혹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지는” 노선이 이른바 ‘전시중립(war neutrality)’이다. 이에 비해 ‘중립화(neutralization)’는 일반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영구적으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중립화는 해당 지역의 ‘비군사화’라는 전제 아래, 주변 강대국들의 합의와 보장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전시중립’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중립주의(neutralism)’는 강대국들의 합의와 보장 없이 해당 국가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지향과 선언(manifesto)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중립의 다양한 구현 양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아, 조선』 식의 거리두기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법 상의 지위’라는 ‘전시중립’의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이때의 중립은 교전국 쌍방에 대한 ‘공평’, ‘無원조’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³⁵⁾ 그러나 전시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동시에 **전쟁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엔 지휘 하 실질적 참전국이었던 일본의 입장에서 ‘전시중립’을 주장하는 것은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에 비추어 현실과 결코 정합하지 않은, 요컨대 이데올로기 차원의 언사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군대를 군대라고, 전차를 전차라고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될 정도로, 전쟁 개입과 재군비의 양상이 일본 대중들에게 최소한으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말이다.³⁶⁾

일본 쪽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자면 『아, 조선』식 ‘전시중립’은 전쟁이 발발한 이래 아사히(朝日)신문이나 마이니치(毎日) 신문, 요미우리(読売) 신문 등 일본의 주류 미디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조선전쟁을 보도하는 기조와 실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³⁷⁾ 예컨대, 전쟁이 터진 직후 발표된 아사히 신문 사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남한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戰火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 다면서도, 동시에 이 전쟁은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을 관계없는 것으로”라는 식으로 표상되었다. 요컨대, 이 전쟁을 현해탄 건너 피안의 사건으로 액자화 하고 일본을 전쟁의 국외자 혹은 안전한 제 3자의 위치에 놓으려는 기조를 일찌감치 선보인 셈이었다.³⁸⁾ 물론, 과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놓여나 평화헌법을 가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 사회로서는 어찌면 이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개입이 이후 점점 노골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중립’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52년 발표된 『아, 조선』의 ‘중립적’ 스탠스를 호평한 평론가 나카노 요시오(中野好

34) 엄상운, 「제 2공화국 시대의 중립화 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 통일」, 『國際政治論叢』 43-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35)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 정치학 사전, 하』, 아카데미리서치, 2002.

36) 존 다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716면.

37) 張允馨, 「朝鮮戰爭と日本とアメリカ占領軍」, 『社會文學』, 日本社會文學會, 2010.6.

38) 「社説: 朝鮮の戰亂と日本の態度」, 朝日新聞, 1950.6.26.

夫)는 “북조선 동정자도 아니고, 남조선 측 입장에서조차 벗어나 서술하고 있는 점이 아주 좋다”라고 호평했으며, 이러한 식의 ‘중립’ 논리는 일본 내 시민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던 재군비 반대와 反戰 평화 논의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중이었다.³⁹⁾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미 깊숙이 발을 담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의 전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전시중립’과 ‘평화’를 함께 표명하는 이들의 모순은 실은 명백한 것이었다.

2. 또 다른 중립: 훗타 요시에(堀田善衛)의 『광장의 고독』

물론 이 모순을 스스로 의식하고 이를 표현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독립 이후 한국의 전장에 파견되기 시작한 일본 특파원들은 이 전쟁이 다름아닌 일본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로 시작되는 아사히 신문 특파원의 보고는 이스즈(ISUZU), 닛산(NISSAN), 도요타(TOYOTA) 등의 일본제 차량이 일본제 무기와 탄약을 실어 나르며, 미군 병사들은 모두 일본제 피복을 착용하고 있는 조선 전장의 풍경을 전달했다.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이제는 바다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밀접해진 현실”이라는 것이었다.⁴⁰⁾ 한편, 문학계의 사정은 이보다 좀 더 일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 가량 지난 초기 시점에서, 이미 프로문학 평론가 아오노 스테키치(青野秀吉)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평화가 요구되고 반전이 외쳐지고 있다. 당연한 요구이나, 그것을 우리들 내심의 문제로 바꿔 말하면 전쟁의 영향을 따져 그것에 강하게 저항해서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⁴¹⁾ 실제로, 대중적인 신문 미디어와는 달리 일본 문학계 일각에서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반전 평화 논의에 대해 미묘하게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⁴²⁾ 이러한 일본 문단의 풍토 속에서 등장했고, 그 가운데

39) 고영란, 위의 글에서 재인용, 나카노 요시오는 한국전쟁에 의한 호황을 배경으로 1956년 『문예춘추 文藝春秋』 2월호에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 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는 제목의 평론을 발표했다. 이 제목은 다음 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경제백서에 채택되어 널리 알려졌고, 일본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다.

40) 『朝日新聞』, 1952.11.16, 남기정, 앞의 2016 책, 404면 재인용.

41) 青野秀吉, 「戦争の影響について」, 『文芸』, 1950.8.

42)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훗타 요시에(堀田善衛)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서도 가장 눈에 띄는 텍스트로 단연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들 수 있다.⁴³⁾ 홋타의 이 소설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발표되어 이듬해 아쿠타카와(芥川) 상을 수상하며 더 유명해진 작품으로, 한국전쟁의 리얼리티 자체보다는 이 전쟁과 일본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를 화두로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에는 신문사에서 외신 기사를 하청 받아 번역 일을 하는 주인공 “기가키(木垣)”가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전쟁이 일본과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 점점 자각하게 되는 인물로, 바다 건너 이 전쟁이 일본의 중공업 공장 지대 풍경을 재빨리 바꾸어 놓는 모습을 아연한 심정으로 관찰한다.

차는 이미 롯코바시(六郷橋)를 지나 가와사키의 중공업 지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난 번 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을 말함·인용자)의 상흔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다. 불에 탄 자리에 뼈 같이 생긴 철골이 밤 하늘에 꽂혀 있다. 양손을 모아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다. 그 바로 옆의 공장은 불에 탄 공장의 뼈나 두개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 밤새 살아 있다. 활활 불타는 주홍빛 불꽃을 토해내면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 속에 놓여 있던 공장이 다시 전쟁으로 인해, 그리고 전쟁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⁴⁴⁾

이 텍스트가 진정 흥미로운 것은 쏘 방위로 한국전쟁의 군사기지가 되어버린 일본의 현실을 소설의 무대 정중앙에 올리면서도, 일본은 두 진영 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는 ‘중립’의 태도를 주인공이 여전히 고수하려 한다는 데 있다. 과연, 이 논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결국, 소설 속에 나타난 “기가키”의 논리는 당시 일본 사회의 주류적인 두 입장 모두를 지양하고 이에 대결하려는 일종의 신념 표명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조선의 전쟁을 일본과 관계없는 사건으로 외재화하는 발상으로부터 발원한, 내면적 성찰이 결여된 평화운동을 지양하겠다는 “기가키”의 의지가 한편에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가키”의 논리는 소설 속에서 미국인 기자 “헌트”

일본문학], 『한국어와 문화』 7, 숙명여자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43) 홋타 요시에(1918~1998)는 1942년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문화진흥회에 취직하여 이 곳에서 파견되는 형태로 상하이에 건너가게 된다. 상하이에서 일본의 패전을 맞이한 그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의 ‘전후’를 냉전체제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획득하게 된다.

44) 「広場の孤獨」, 『戦争×文学 冷戦の時代』, 集英社, 2012, 584면.

의 논리와 팽팽히 대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인 기자는 일본이 조선의 전쟁에 이미 깊숙이 “커밋(コミット)”하고 있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이 현실을 일본이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 당위의 논리로 전유(appropriation)하려는 인물이다. 텍스트 바깥에서 보자면, “기가키”를 설득하려는 헛트의 주장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진 미국의 재군비 요청, 그리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동의하기 시작한 재군비 찬성론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훗타 요시에는 당시 일본 사회의 대중적인 ‘평화론’과 ‘재군비론’ 모두에 거리를 두고 양자를 동시에 지양하려 시도한 것이었고, 이 입장의 희소성 혹은 특이성을 바로 소설의 제목인 ‘광장의 고독’이라는 문구로써 표현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주인공 “기가키”의 입장을 앞서 언급한 중립의 범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기가키가 주장하는 중립이란 교전국 쌍방에 대해 공평무사한 거리를 두는 ‘전시중립’의 논리라기보다는 ‘중립주의’에 가까워 보인다. 중립을 보장하는 강대국들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의 중립 의지를 선언하고 국제 사회에 천명하는 마니페스토로서의 ‘중립주의’. 결국, 이 중립주의는 일본 헌법 9조가 상정하는 평화의 像인 ‘중립화’의 경지를 필연적으로 지향할 터였다. 헌법 9조를 수호하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노선이야말로 자국의 철저한 비군사화를 전제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을 획득하는 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라타니 식으로 바꾸어 말해보면 어떨까. 이 길은 헌법 9조를 어떠한 꼼수의 해석 개헌도 없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노선이다. 가라타니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자위권의 단순한 방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 사회를 향한 순수한 증여로 일본은 결코 군사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증여의 현실적 위력**에 대한 믿음, 순진한 몽상으로 늘 평가 절하되는 ‘이상’의 현실성에 대한 확신.⁴⁵⁾

물론, 이러한 훗타 요시에식 ‘중립주의’의 이상이 이미 한 쪽 편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진 일본의 전시 궤도 한가운데서 과연 ‘고독’하다는 표현에 걸맞을 만큼 평화운동 일반과 선명하게 차별화된 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일본은 그 어느 쪽 편도 아니라는 기가키의 선언을 뒷받침해 줄 현실적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하여, 전쟁 당시로서는 그저 주관적인 의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45) 가라타니 고진, 앞의 2017 책, 132~136면.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⁴⁶⁾ 그러나 적어도 「광장의 고독」이라는 텍스트가 ‘중립’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담론의 연결 고리에서 어느새 결정적으로 누락되어버린 ‘조선/전쟁’과 일본의 긴밀한 연루 양상을, 그저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일본의 독자 대중들에게 정면으로 노출시켰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⁴⁷⁾

3. 재일조선인 사회라는 컨텍스트와 『무궁화』(1954)의 ‘중간파’

장혁주는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10월 귀화 신청이 승인되어 일본 국적을 마침내 획득하게 된다. 장혁주와 재일조선인 사회 사이의 갈등은 ‘해방’ 직후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그의 일본 귀화라는 사건에 이르러 이 불화는 정점에 달하게 된다. 특히, 점령당국에 의해 사상적 불온성을 의심받아 해체(1949)된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⁴⁸⁾ 출신 인사들로부터 그는 민족 배반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어, 일상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렬한 증오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조련과 정치적으로 대립 구도에 놓여 있던 ‘민단(在日本居留民

46) 서동주, 「전후」의 기원과 내부화하는 ‘냉전’-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2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47)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보다 조금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이기는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사타 아네코(佐多稲子)의 「바퀴 소리 車輪の音」(『文學界』, 1954.3)나 다나카 고미마사(田中小実昌)의 「상륙上陸」(『新潮』 1957.12)과 같은 작품도 일본이 한국전쟁에 군사 기지로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그렸다. 「바퀴 소리」에는 한국전쟁 특수로 군수 경기 활황을 맞이한 공장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필사적으로 일하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죽는 임시직 노동자가 등장한다. 「상륙」은 도쿄 만의 하역 작업을 위해 배를 탄 노무자들 7인이 자신이 탄 배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탈출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소명선,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와 ‘한국전쟁」, 『日本近代學研究』 61,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48) 조련은 1945년 10월 16일 발족되었다. 강령으로 “신조선 건설에 헌신적으로 기여한다.”, “세계 평화의 향상적 유지를 기한다.”, “재일동포의 생활에 안정을 기한다.”, “귀국 동포의 편익과 질서를 기한다.” 등등의 조항을 내걸었다. 민단의 설립은 이보다 1년 가량 늦은 1946년 10월 3일이었다. 김인덕, 「재일조선인단체의 형성 과정-조련, 민단, 총련」, 『내일을 여는 역사』 63,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6.6.

團)’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⁴⁹⁾ 민단의 기관지 편집 일을 잠시 맡아 보기는 했지만, 민단 내에서도 역시 장혁주라는 실명을 공공연히 내걸 수는 없는 상태였다.

알려진 대로,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사회는 고국의 정치적 대립을 그대로 축소 한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공산당과 직접 연계된 재일조선인들은 “미국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반전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⁵⁰⁾, 동포를 살상하기 위해 한반도로 끊임없이 수송되는 군수 물자 공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재일조선인들이 밀집한 오사카(大阪) 중공업 공장 일대에서 벌어진 쓰이타(吹田), 히라카타(枚方) 사건 등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이 일본 열도 내에서 소규모로 고스란히 재현되었을 정도로 일본 경찰과 격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오사카에서 벌어진 조선전쟁”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 사건들은 바다 건너 조선의 전쟁이 결코 일본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입증했고, 전장이 된 조선과는 달리 그저 평화롭게만 보였던 일본 사회의 일상에 파열음을 낸 의미심장한 징후들이었다.⁵¹⁾

한편, 우파 성향의 민단 측 전쟁 대응 양상은 문자 그대로의 ‘참전’으로 나타났다. 남한 정부군의 불리한 전황에 비분강개한 청년들은 혈서를 쓰며 참전을 지원했고, 이 열렬한 애국의 요청은 그들의 이념적 성향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승만에 의해 일단 거부되었다가 SCAP(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인가로 마침내 승인되었다. 재일조선인 청년 총 642명의 젊은 목숨을 건 참전이였다.⁵²⁾ 민단 계열의 참전이든 일본공산당과 연대한 반전 시위이든 재일조선인 사회 전체가 한국의 전장으로 견장을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양측 모두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장혁주는

49) 민단의 초기 단장은朴烈로, 그는 조련의 성원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전체 조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며, 조국 동포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정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단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승만 정부가 재일 민단운동을 통제하면서부터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상부 지도자들의 구성 기준이 되면서부터였다. 가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옮김, 『해방 후 재일조선인운동(1945~1965)』, 선인, 2014, 38~39면.

50) 1952년 한국전쟁 2주기를 전후해서 재일조선인-일본공산당원-학생-노동자의 연대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다. 장세진, 「트랜스내셔널리즘, (불)가능 그리고 재일조선인이라는 예외상태」, 『동방학지』 15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51) 西村秀樹, 『大阪で闘った朝鮮戦争: 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東京, 岩波書店, 2006.

52) 이환남, 『혈혼의 전선』, 재일교포학도의용군자립동지회, 1958, 계문사.

일본 귀화를 계기로 이 모든 대립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 물론 귀화의 후폭풍은 적지 않은 것이어서, 장혁주는 이 상황을 좌와 우 “양쪽 모두가 민족을 모욕했다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것으로 기술한다. 실제로, 그는 「협박」(1953)이라는 자전적 소설에서 귀화 이후의 솔직한 감회를 죄의식보다는 “가슴 후련함”으로 표현한 바 있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노구찌 가쿠츄(野口赫宙)라는 일본 이름으로 첫 발표된 장편 『무궁화』(1954)가 해방기 이래의 이른바 ‘중간파’ 정치인 집안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예견된 선택으로도 보인다. ‘중간파’란 누구인가. ‘(남북)협상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운 이들은 이승만식 남한 단정에 반대하며 좌우연립정권을 통해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상정한 해방기의 정치 그룹이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중간파’가 좌와 우의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좌와 우 양쪽 모두로부터 거센 비난과 협공을 받으면서 점차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갔다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서, 어쩌면 장혁주는 자신과의 실제 유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로부터 소설 창작의 영감과 정서적인 동질감까지를 함께 얻었음지도 모른다. 물론, 남한의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 ‘중간파’의 이념적 스펙트럼 자체는 좌부터 극우까지 상당히 넓은 것이었는데, 『무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김명인”은 (좌파에 가까웠던) 여운형이나 (중도 우파의) 김규식 계열이 아닌, 뒤늦게서야 협상파로 전환한, 보다 오른쪽인 김구 계열의 정치가로 등장한다.⁵⁴⁾

시기적으로 보면, 『무궁화』는 전장 취재를 토대로 쓰인 장혁주의 글쓰기에서 가장 이후에 창작되었고, 그동안의 글쓰기를 집대성하려는 저자로서의 야심과 기획도 엿보이는 소설이다.⁵⁵⁾ 실제로, 이 텍스트는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참상을 배태

53) 장혁주, 호테이 토시히로, 시라카와 유타카 옮김, 「협박」, 『장혁주 소설선집』, 태학사, 2002.

54)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보았을 때, 김구 계열은 민족주의 우파이며 때로 극우적 성향도 보였으므로 『무궁화』에서 김명인을 중도협상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다만, 협상파 전체를 좌파와 우파의 ‘중간’으로 인식한 대중적 통념이 실제로 협상파를 ‘중간파’, 혹은 ‘중도 협상파’로 부르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대의 언어적 현실에 부합하는 묘사라고 할 수 있다.

55) 양희숙의 논문에 따르면, 『아, 조선』에 대한 일본 문단의 ‘박한’ 평가나 작품에 관한 장혁주 자신의 불만이 한국전쟁에 관한 두 번째 장편인 『무궁화』를 전작과는 다른 기획으로 집필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장혁주는 다음과 같이 『무궁화』의 창작 배경을 밝힌다. “『아, 조선』이 동단의 표면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추적한 나머지, 다소 저널리스트하게 쓰여진 경향이 있어 스스로 불만을

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장혁주 나름의 소설적 답변으로 읽힌다.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조선은 이런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가? 미리 답을 말하자면, 해방기 정국 이래 결정적 모멘텀을 몇 번씩이나 잃어버리고 좌우 테러의 대상으로만 전략해 버린 ‘중간파’의 정치적 좌절이 바로 장혁주가 찾아낸 해답이었다. 물론, 미·소라는 외삽 세력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절대 상수로 존재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요인을 보다 증폭시켜 극적인 스케일로 대립을 내재화해 버린 좌우 양극 세력과 그들의 욕망에 속절없이 패배한 ‘중간파’의 정치적 실패와 전략 부재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분명 아쉽고 뼈아픈 것이었다. 재일조선인 사회 내에서의 철저한 고립이라는, 개인적인 창작 동기로 추정되는 저간의 맥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장혁주의 답안은 따라서 경청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특히, 이 텍스트에는 ‘중간파’를 탄압하며 강경 반공 드라이브 일색이었던 이승만의 부패한 남한 국내 정치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교회와 서북청년단의 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우파 세력의 교묘한 통치와 잇단 백색 테러의 음산한 기술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무궁화』는 분명 『아, 조선』보다 좀 더 날카롭고 진전되어 있다.

연관되는 현상이겠지만 『무궁화』는 미국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아, 조선』에 비해 한층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미군의 공중 폭격에 대한 자세하고도 비중 있는 묘사는 확실히 눈여겨 볼만하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국전쟁 중 가장 많은 인명 손실과 파괴를 야기했던 미군의 공습이 한국전쟁을 다룬 동시대의 남한 소설 속에서 기이할 만큼 과소 재현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소설이 발표된 시점이 1954년으로 일단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라는 것, 일본의 ‘독립’(1952) 이후 저자로서 아무래도 검열을 덜 의식하게 된 사정과도 분명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군 공습에 대한 재현과 정확히 연동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무궁화』는 인민군이나 심지어 중공군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주인공 소녀 “옥희”는 중공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소문과 인종적 편견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녀의 집을 임시 숙사로 차례로 징발했던 ‘미군/한국군’과 ‘중공군’을 비교할 때조차도 그녀는 여자들

품고 반성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한 형식으로 민족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張赫宙, 「ルポルタージュ朝鮮」, 『群像』, 1953.1; 梁姬淑, 앞의 2014 글, 88면에서 재인용.

을 함부로 희롱하고 겁탈했던 전자의 군대보다 어느새 후자를 지지하는 심정이 되어 있다. “설령 몇 주간 밖에 알고 지내지 않았다 해도 여기에는 일종의 질서가 생겨났다는 것, 그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의용병들(중국군을 가리킴)이 인륜을 존중하는 태도가 고맙게 느껴졌다.”

전쟁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계급적인 시각에서도 주인공 “옥희”가 사뭇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대지주 집안 손녀인 그녀의 ‘출신성분’을 생각하면 의외의 일이다. 자신과 똑같은 어린 소녀인 하녀들이 인민군 치하의 세상에서 달라진 대우를 받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대목은 그저 시련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한 이 전쟁을 거치며 그녀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쩍 성장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비록 소비에트의 사회의 이상을 다소 낭만화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는 해도, 오히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무궁화』는 당대의 한국(어) 소설 속에서 인공 치하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도식적인 묘사로부터 훌쩍 이탈하게 된다.

하녀라는 존재를 이렇게 톱톡히 본 적이 없는 옥희는 다른 집에 맡겨져 단지 일만 하는 불운한 신세의 고용된 하녀들에게 感傷적인 동정을 기울인 일이 예전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처럼 자신과 하녀가 동등하게 보인 일은 없었다. 그녀는 하녀에 대한 기존의 정해진 관념을 일소하고, 고용주라든가 고용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소비에트 사회라는 것이 옳바르다는 사실을 이즈음 몸으로 느꼈다. …… 옥희로서는 하녀가 은인처럼 고마웠고, 하녀와 같이 불운한 많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구제될 수 있다면, 이대로 인민정권의 세상이 되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⁵⁶⁾

다만, 남한에서는 몹시 예외적이었던 이러한 재현들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일본어 창작과 출판이라는 조건을 고려해보는다면, ‘협상파’ 혹은 ‘중간파’ 정치인에 관한 좀 더 전면적인 재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비록 통치 권력에 의해 상당한 정치적 고초를 겪고는 있었지만, 남한의 협상파는 실은 한국전쟁 직전의 국회의원 선거(1950.5.30)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적지 않은 민심의 선택과 신뢰를 받기도 했다. 그러니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56) 장혁주, 장세진 옮김, 『장혁주 소설선집 2: 무궁화』, 소명출판, 2018, 347면.

그들의 활약이 좀 더 서사의 전면에 전진 배치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 텍스트는 옥희 아버지이자 협상파의 유력 정치가인 “김명인”을 육체적으로 이미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로 등장시킨다. 또한 그는 서사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조기 퇴장하고 만다. 그 결과, 협상파의 정치적 과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소녀 “옥희”가 대신 무대 전면에 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유망했던 협상파 정치가 집안의 남김 없는 몰락을 그녀가 그저 무력하게 목격해가는 과정이 어느새 이 소설의 중심이 되어 버린다.

물론, 당시 한국 문인들의 경우라면 정권의 전 방위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협상파’라는 소재 자체를 거의 다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효풍』(1948)이라는 소설을 통해 남북협상의 비전을 진지하게 다루고자 시도했던 한국문단의 중견 염상섭 역시 검열의 압박 속에서 이 소설을 결코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1948.12)되고 보도연맹이 수립된 이후인 1949년에 이르면 대대적인 ‘전향’ 공작과 함께 남한의 창작 여건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걷는다. 협상파라는 소재에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염상섭이 『무풍대』(1949)에서 수위를 낮추어 한 번의 시도를 더해 보지만, 알려진 대로 이 시도 역시 중단된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왕 귀화라는 선택을 통해 한국(어) 컨텍스트의 족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장혁주가 자신이 가진 특유의 조건을 좀 더 ‘세계’ 밀어붙였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궁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IV. 결론: 어떤 중립, 어떤 평화를 지향할 것인가

1953년 발표된 「눈」(『文芸』)은 한국전쟁을 취재하는 작가 장혁주 자신이 화자로서 그대로 등장하는 단편으로, 어쩌면 소설과 르포르타주의 경계선 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좋을 작품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아, 조선』을 비롯하여 장혁주의 전쟁 취재기들이 줄곧 견지해왔던, 예의 ‘전시중립’의 태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균열의 순간을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누설하고 있는 까닭이다.

「눈」이라는 텍스트의 대부분은 화자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두 명의 군인들-아마

도 한국군의 특수 기관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로부터 38선 이북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투 경험을 전해듣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잡지 『婦人俱樂部』의 후원으로 1952년 10월 두 번째 방한한 장혁주의 취재 반경은 주로 서울 지역 부근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접근이 어려운 38선 이북의 취재는 이런 식의 간접 경험담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이라는 텍스트가 결국 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 까닭은 이 작품의 목적이 당시 서울의 현황이나 38선 이북의 실태를 독자들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에 제시된, 화자가 느끼는 짧지만 강렬한 어떤 감정에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장혁주 화자’가 수용소에서 난민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취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용소 측의 제지를 받고 시비가 붙었을 때, 때마침 38선 이북 경험담을 들려주었던 전날 밤의 군인 청년들 중 한 명이 조정자 자격으로 등장한다.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던 화자는 그러나 전날 밤과는 전혀 달라진 청년의 고압적인 자세에 크게 당황한다. 청년이 자신에게 단 몇 시간이라도 구급 조치를 취하게 되면, 촉박한 원고 송부 일정에 크나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마저 놓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쳐 ‘장혁주 화자’는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한다.

이제까지 내게는 동란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나라의 정치의 혼란도, **내게는 다른 사람의 싸움이였다**.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땅의 인민이 흘린 피도 **내게는 타인의 피였다**. 내가 아무리 그럴 듯하게 조국의 이 사태를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쳐보아도, 그것은 **관념 상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데 그칠 뿐이지 실제로는 역시 다른 집의 화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눈앞에 비치는 모든 것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허리 위로는 올라오지 않는 붉은 벽돌 건물도, 무너져 내린 빌딩도 불에 타 문드러진 민가도 보고 있으면 “아프다”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좀 전의 혐의로 동란에 한 발자국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선생님 풍의 청년 마음 속에서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나도 동란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었다**. 과장일지도 모르고 묘한 귀변일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싹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확실했다.⁵⁷⁾

57) 張赫宙, 「眼」, 『文芸』, 1953.10.

한국전쟁이 이제까지 자신에게 그저 강 건너 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자각의 순간은 자신 역시 동란 가운데 던져진 일부로서, 생사를 걸고 가까스로 존재한다는 공포의 감정과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한국전쟁에 대한 장혁주의 기존 입장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아찔한 ‘전율’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는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며 나직이 위협하던 한국 청년의 눈초리를 뇌리 속에서 지워내기 위해 애쓴다. 그렇다면, 인용문 마지막에서의 독백처럼 ‘장혁주-화자’가 한국전쟁을 보는 ‘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향후 사태가 그런 식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터였다. 이 텍스트는 새로운 자각의 순간이 이끄는 방향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연한 사건을 통해 순간적이었지만 강력했던 두려움을 봉합하는 쪽을 선택한다. ‘장혁주-화자’는 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예의 평온한 외부 관찰자의 위치로 되돌아가며, 몹시 “행복한 기분”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이제 시야를 좀 더 확장해보자. 장혁주가 일련의 전쟁 취재기와 소설을 통해 일관되게 구현하고 있는 ‘전시중립’의 스탠스를 당시의 국제관계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설들을 통해 일관되게 구현하고 있는 ‘전시중립’의 스탠스를 당시의 국제 관계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요약해보자. 미국 점령 하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요구받아, 비밀리에 이를 수행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부인해야 했던 일본 정부, 그리고 대다수 리버럴한 일본 지식인들의 주류적 평화 노선과 장혁주의 입장은 사실상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전후 패전국들의 처리 과정에서 독일 문제가 처음부터 다자간(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로 설정되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의 단독 플레이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진 그대로이다. 그 결과, 일본이 사실 상 참전 중인 한국전쟁의 와중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미국의 설계대로 중국이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이완의 참가가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소련이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의 경우, 참가는 했지만 조약에 내재한 부당성을 비판하며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일본의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빠진 편면강화 방식으로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자연히 “일본의 재건과 재무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나 탈식민 전후 처리를 거의 무시”한 상태로 체결되기에 이른다.⁵⁸⁾ 요컨대, 한국전쟁 중 성립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기획한 평화란 동서

의 진영론을 깊숙이 내면화하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진영론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방식인 셈이었다. 1952년 이루어진 장혁주의 귀화는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시에 주권 국가로 독립한 일본으로의 영구 귀속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야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한국전쟁을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 드문 계보에서 최인훈의 『광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조선』보다 8년 후인 1960년 4월, 거침없는 시민혁명의 기운 속에서 탄생한 이 소설은 선행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지적되었듯이,⁵⁹⁾ 한국 사회에서 그간 통용되던 중립의 의미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그야말로 야심적인 전복의 텍스트였다. 확실히, 1950년대 한국에서 중립은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의미의 ‘용공’이라는 수상한 뉘앙스 속에 갇혀 있는 단어였다. 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비겁과 나약 심지어 도피까지를 의미하는, 결코 명예롭다 말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광장』에 이르러 이제 ‘중립’의 의미는 변전된다. 제 3국을 선택한 이명준의 중립은 양자택일을 강박적으로 강요하는 냉전 논리의 타당성과 정합성을 오히려 그 근본에서부터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공의 인물 “이명준”은 이제 남도 북도 아닌 저 너머의 제 3지대를 상상하려는 사람들의 시대를 초월한 참조처이자 탈냉전적 감수성의 기원으로 확고부동하게 등극한 셈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가능하다. “이명준”이 『광장』의 결말부에서 그리는 제 3국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아, 조선』의 “성일”이 몽상처럼 그려 보는 백일몽은 사실상 유사하지 않은가? 아닌 게 아니라, 둘의 상상력이 그 자체로 닮은 구석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승만도 김일성도 없는, 어딘가 먼 땅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생각하곤 했다. …… 탈출할 수 있다면, 그는 일본에도 필리핀에도 태평양의 외딴 섬에도 갈 수 있다. 그는 정치가 없는 작은 섬에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선망했다.”⁶⁰⁾ “이명준”과 “성일”로 하여금 이러한 식의 평화를 꿈꾸게 상황이 공히 남한의 포로수용소라는 점 역시 동일하다.

58)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539면.

59)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전쟁의 포로 서사와 중립의 좌표」, 『한국현대문학연구』 53, 한국현대문학회, 2017.

60) 장혁주, 『아, 조선』, 앞의 2018 책, 317면.

그러나 결국 두 인물의 유사성보다 차이가 한층 결정적이라는 점을 덧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광장』의 중립이 열전의 한 가운데서, 공고한 진영 논리의 판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상상력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아, 조선』의 중립과 평화는 어떠할까. 마루카와 데즈시의 통찰 그대로, 그것은 냉전(열전)에서 비껴나 있다는 일본 사회 특유의 기묘한 “방관자로서의 의식”⁶¹⁾으로부터 발원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은 출발점이 전혀 달랐고 결과적으로 상이한 좌표에 놓이는 것이었다.

투고일: 2019.07.22

심사일: 2019.08.23

게재확정일: 2019.08.30

61) 마루카와 데즈시, 앞의 2010 책.

참고문헌

- 張赫宙, 「祖國朝鮮に飛ぶ第一報」, 『毎日情報』, 1951. 9
——, 「故國の山下」, 『毎日情報』, 1951. 11
張赫宙, 「ルポルタージュ朝鮮」, 『群像』, 1953. 1
張赫宙, 「眼」, 『文芸』, 1953. 10
장혁주, 장세진 옮김, 『장혁주 소설선집 1: 아, 조선』, 소명출판, 2018
——, 장세진 옮김, 『장혁주 소설선집 2: 무궁화』, 소명출판, 2018
——, 호테이 토시히로, 시라카와 유타카 옮김, 『장혁주 소설선집』, 태학사, 2002
「社説: 朝鮮の戦亂と日本の態度」, 朝日新聞, 1950. 6. 26
青野秀吉, 「戦争の影响について」, 『文芸』, 1950. 8
堀田善衛, 「広場の孤獨」, 『戦争×文學 冷戦の時代』, 集英社, 2012
野平陽一, 「憲法九条と私の體驗」, 『海員』, 2006. 8~10
「오키나와인들의 선택은 공존과 평화」, 『시사IN』, 2018. 10. 17
MBC, “6·25, 일본 참전의 비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년 6월 22일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헌법의 무의식』, 도서출판 b, 2017
가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옮김, 『해방 후 재일조선인운동(1945~1965)』, 선인, 2014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마루카와 데츠시(丸川哲史),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이할남, 『혈혼의 전선』, 재일교포학도의용군자립동지회, 계문사, 1958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 정치학 사전』 하,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존 다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716면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 朝鮮戦争秘史』, 岩波書店, 2007
西村秀樹, 『大阪で闘った朝鮮戦争: 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東京, 岩波書店, 2006
白川豊, 『朝鮮近代知日派作家, 苦悶の奇跡』, 勉誠出版, 2008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전쟁의 포로 서사와 중립의 좌표」, 『한국현대문학연구』 53, 한국현대문학회, 2017

- 고영란, 「‘조선/한국전쟁’ 혹은 ‘분열/분단’: 기억의 승인을 둘러싸고」, 『大東文化研究』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 김인덕, 「재일조선인단체의 형성 과정-조련, 민단, 총련」, 『내일을 여는 역사』 63, 내일을여는 역사재단, 2016
- 김학동, 「6·25 전쟁에 대한 張赫宙의 현지르포와 민족의식」, 『인문학연구』 76,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_____, 「장혁주의 『아, 조선(嗚呼朝鮮)』, 『무궁화』론: 6·25 전쟁의 형상화에 엿보이는 작가의 민족의식」, 『日本學研究』 24,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8
-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훠타 요시에(堀田善衛)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 『한국어와 문화』 7, 숙명여자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 남상옥,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 서동주, 「‘전후’의 기원과 내부화하는 ‘냉전’-훠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28, 한국일본사상학회, 2015
- 소명선,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와 ‘한국전쟁」, 『日本近代學研究』 61,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 신승모, 「전후의 장혁주 문학」, 『日本文化研究』 13,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 장세진, 「트랜스내셔널리즘, (불)가능 그리고 재일조선인이라는 예외상태」, 『동방학지』 15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3
- 鈴木英隆, 「朝鮮海域に出撃した日本特別肅清隊」, Military history studies annual 8, 防衛研究所, 2005
- 梁嬉淑, 「張赫宙戰後研究: 終戰から歸化まで」, 埼玉大學大學院文化科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14
- 石丸安藏, 「朝鮮戰爭と日本の港湾-國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 NIDS security studies 9-3, 防衛省防衛研究所, 2007
- 張允謨, 「朝鮮戰爭をめぐる日本とアメリカ占領軍-張赫宙 『嗚呼朝鮮』論」, 『社會文學』 32, 社會文學編集委員會, 2010
- Tessa Morris-Suzuki, Japan and the Korean War: A Cross-Border Perspective, <特輯: 朝鮮戰爭と日本>, アジア研究, Vol 61, アジア政經學會, 2015

'Peace' of Military Base and the Writings of the Battlefield

Chang, Sei-jin

This article aims to read Chang Hyeuk-Ju's texts on Korean War, especially *Alas Chosun*(1952) and *Mugunghwa*(1954) by cross-check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t that time. Chang Heuk-Ju wrote these texts after making two round trips in real time when Korean War broke out, which was very exceptional and make these texts noteworthy.

This paper presents the sense of neutrality as consistent feature of Chang Heuk-Ju's texts on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Korea(n), the Neutrality means 'objective' and rare stance taking neither side in the warfare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neutral position of *Alas Chosun* made it possible to criticiz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e incompetence and ward-heeling politics of Rhee Syngman government in a fare and square way. In case of *Mugunghwa*, the neutral position reveals itself in a way that mourns a downfall of Kim(moderate party's politician)'s family which had been rich and influential for generations. All these representations were possible under the condition of Japanese writing and Japanese media which were free from the censorship of Korean governme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neutrality of Chang Heuk-Ju's texts was originated from totally different horizon in considering Japanese context at that time.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eutral attitude of Chang Heuk-Ju's text must be read in the context of mainstream peace discourse in Japan those days. Peace discourse cannot be underestimated considering that it showed the will to preserv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e self representation of Japan, however, was problematic because it was not established before Japan omitted the reality of participating in Korean War in a large scale as a military base state.

In Chang's texts, the aspects of involving in Korean War were clearly erased, though they were written after Chang witnessed the Korean battle field reality. The bottom line

is that Chang's texts internalized the popular view that Korean War was a totally another's affair then. Or It can be said that his texts intensified this kind of general opinion.

Key Words : Chang Heuk-Ju, Korean War, Military base state, participation in war, *Alas Chosun*, *Mugunghwa*, war neutrality, neutralization, neutralism, Hotta Yoshiae, Jainichi, Sanfrancisco Peace Treaty